

보도시점 2026. 7. 16.(목) 10:30 배포 2026. 7. 16.(목) 8:30

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,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, 국민참여예산제도 개편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

- 기획예산처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

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7월 16일(목)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「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」을 개최하고, 정책·제도 개선 분야(적극행정 스타)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(적극행정 IN스타)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하였다.

□ 적극행정 스타(4명)

‘적극행정 스타’는 적극적 정책마련, 제도·규제 개선 등 사례에 대해 국민 체감도, 적극성,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(6명) 및 국민 모니터링단(10명) 평가, 국민 평가(소통24 홈페이지)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하였다.

최우수상은 ‘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’를 도입하여 20여 년 만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,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선정되었다.

다음으로 ①중동전쟁 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편성, ②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.

마지막으로 장려상은 공공 정보시스템 메뉴 정비를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정보화전략계획(ISP)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 AI서비스 신속 도입을 추진한 사례가 선정되었다.

□ 적극행정 IN스타(4명)

‘적극행정 IN스타’는 부내 업무혁신이나 홍보에 기여한 사례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(6명) 평가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하였다.

혁신 우수분야에서는 ❶ Vision X(혁신리딩그룹) 활동을 통해 기획예산처 AX를 선도한 사례, ❷ 부처 최초 업무망 내 상용 AI를 도입하고 지능형 플랫폼을 조기 안착시켜 업무 효율을 높인 사례가 선정되었고, 홍보 우수분야에서는 ❸ 다양한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, 홍보영상 출연·감수를 통해 정책홍보를 강화한 사례(2건)가 선정되었다.

박홍근 장관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, “급변하는 경제·사회 환경과 AI 대전환을 맞아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.”고 강조하고, “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자.”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이고은 (044-214-14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우태 (wootae7@korea.kr)
			주무관	김경연 (kykim09@korea.kr)